



동 우 회 소 식

The Dongguk Alumni News

발행처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33-3991~3/FAX · 733-3992/1999년 9월 20일/제7호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개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려



P
L
U
S
+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와 북미주총동창회가 만났다. 결과는?

〈좌측〉지난 4월 25일 WHITTIER NARROW GOLF COURSE에서 열린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 가진 기념촬영. 〈우측〉작년 10월 18일 경주CAMPUS 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동국인 체육대회 모습.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제16회)》가 오는 10월 1일(金) 오후 7시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회장과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황명수(53 정의·국민회의 부총재)명예회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배시영(63 경제·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장과 이태근(58 정의·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등 150여명의 북미주 동문들과 본회 고문, 부회장이하 모든 임원 및 동문을 포함해 500여명

의 동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상록원에서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10월 2일에는 경주로 이동하여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 대연회장 에서 「'99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를 갖고, 3일에는 경주 보문 C.C에서 골프로 동문간의 우의와 정을 다진 후, 오후 일찍 모교 경주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열리는 동국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범 세계적인 동국인 축제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사상처음으로 북미주총동창회

를 포함해 전국의 각 지부·지회를 총 망라하여, 범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을 내외에 떨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동국인의 긍지를 고양하고 동문간의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개최된다.

이번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에는 △서울총동창회 △경주직할동창회 △부산동문회 △대구동문회 △광주동문회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2면에 계속〉

동 창 : 《同窓》 같은 학교에서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 한 학교에서 동기(同期)로 졸업한 사람.

동창회 : 《同窓會》 한 학교의 출신자가 상호간의 친목, 또는 모교와의 연락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대전동문회 △전북동문회 △영북(속초·고성·양양)동문회 △포항동문회 △인천동문회 △울산동문회 △경주캠퍼스재직동문회 등 총 13개 지부와 북미주총동창회 13개 전 지부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 동국인은 하나라는 의의를 되새긴다.

경기종목은 배구, 줄넘기, 줄다리기와 응원전으로 하며, 배점은 각종목당 1위 100점, 2위 80점, 3위 60점으로 계산하고, 총점수로 종합우승(우승기와 우승컵), 준우승, 3위를 가리며, 골프와 윷놀이는 번외경기로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동창(문)회 사상 처음으로 북미주 전 동문을 고국으로 초청하여 대대적인 환영연과 체육대회를 가지는 본회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시로 북미주총동창회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동문회에도 전화와 팩스로 서로의 상황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본회는 지난 7월 15일과 9월 2일 2차에 걸쳐 본 행사를 위해 권노갑 회장과 송석구 총장 등 고문과 부회장들이 모여 본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 행사비용 마련과 행사 절차에 대한 모임을 가졌으며, 또한 9월 10일에는 경주캠퍼스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전국 지부·지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고, 9월 13일에는 감사·분과위원장 회의를 갖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는 9월 20일에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 회의가 권노갑 총동창회장 주재로 열릴 계획이다. 이에 북미주총동창회도 각지역별로 해당지역 교포신문에 이번 대회를 홍보하여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10월 2일 열리는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에서는 북미주총동창회 창립을 위해 회칙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미주총동창회와 시카고동문회의 창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병희(65 정의)전 사무총장과, 벤쿠버

동문회와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박두일(66 정의·본회 부회장) 벤쿠버동문회 고문, 그리고 북미주 유일한 여성 동문회장으로 현재 Lockheed Martin사의 판매담당 이사로 재직하며,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지극 정성으로 봉사하여 동국인의 위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의 모범을 보인 하혜원(67 영문·본회 부회장) 샌프란시스코동문회 회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키로 결의했다.

「'99 동국인 체육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지부·지회는 참가종목과 참석자 명단을 9월 28일(火)까지 본회로 연락하여야 한다.

지난해 열린 「'98동국인 체육대회(15회)」에서 종합우승은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91 지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이 차지했으며, 종합준우승은 경주재직동문회(회장=최규철·66 정의·경주캠퍼스 부총장·본회 상무이사)가, 종합 3위는 경주직할동창회(회장=김덕수·65 행정·본회 상무이사)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행사경비는 평년 행사경비(3,000만원)의 3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동문들의 협찬금과 협찬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협찬금은 동봉한 지로용지로 보내시면 되고, 협찬 상품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하거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동국인의 단결된 힘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세부 일정

가. 행사기간: 10월 1일(金) - 10월 4일(月) / 3박4일

나. 세부일정:

① 10월 1일(金):

- CHECK-IN(AMBASSADOR HOTEL / 12:00 - 18:00)
- 환영연(모교 서울캠퍼스 상록원 RESTAURANT / 19:00 - 21:00)
- AMBASSADOR HOTEL(1박)

② 10월 2일(土):

- 경주이동(10:00 서울 출발 / 15:00 경주 도착)
- 관광(불국사, 석굴암 등 / 15:00 - 18:00)
- CHECK-IN(경주 KOLON HOTEL / 18:00 - 19:00)
-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경주 KOLON HOTEL 야외 대연회장 / 19:00 - 21:00)
- 경주 KOLON HOTEL(1박)

③ 10월 3일(日):

- 골프 TEE-OFF(경주 보문 C.C / 07:00 - 14:00)
- '99 동국인 체육대회 개최(경주캠퍼스 체육관 / 10:00 - 17:00)
- 동국인 체육대회 합류(경주캠퍼스 체육관 / 15:00 - 17:00)
- 경주 KOLON HOTEL(1박)

④ 10월 4일(月):

- CHECK-OUT(10:00 -) ⇒ 서울 도착(15:00 전후)

※ 참석 여부를 9월 28일(火)까지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본회는 「'99 동국인의 밤(제28회)」행사를 오는 12월 16일(木) 오후 7시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공헌한 동문, 동창회와 모교의 위상을 제고한 동문, 동문들의 화합을 이끈 동문들에게 감사패, 축하패, 공로패 등을 전달합니다. 이에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지원을 바랍니다.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제16회 동국인 체육대회 협찬 동문 명단

협찬금을 내주신 고문님과 회장님이하 모든 동문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999. 9. 15일 현재)

- ▲권노갑 (53 경제·국민회의 고문) 회장 = 500만원
 - ▲문태식 (49 사학·아주산업<주> 회장·본회 고문) = 500만원
 - ▲류근창 (50 문학·고려송의회 이사장·본회 고문) = 200만원
 - ▲정재철 (52 정의·유암문화재단 이사장·본회 고문) = 300만원
 - ▲김성섭 (53 정의·<주>대동개발 회장·본회 고문) = 500만원
 - ▲송석구 (62 철학·모교 총장·본회 고문) = 500만원
 - ▲류주형 (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본회 수석부회장) = 300만원
 - ▲김일윤 (92 경원·국회의원·본회 부회장) = 100만원
 - ▲설규성 (67 법학·본회 운영위원) = 100만원
 - ▲남재우 (78 정의·본회 이사) = 100만원
- 계=3천1백만원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제16회 동국인 체육대회 참석 북미주동문 명단

(1999. 9. 15일 현재)

-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 이태근 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 장정현 북미주총동창회 수석부회장
 - ◆뉴욕
구영범 회장, 최무남, 김성국 동문 등 8명
 - ◆워싱턴
김태업 회장, 차경훈 동문 등 8명
 - ◆달라스
오재관 회장, 이종철 전회장 동문 등 8명
 - ◆디트로이트
양창수 회장, 강충현 동문 등 8명
 - ◆LA
김경제 회장, 김종한 전회장, 배문희, 임경호 동문 등 40명
 - ◆시카고
유홍열 회장, 김원순 전회장 부부, 윤응모, 곽병희 동문 등 10명
 - ◆휴스턴
이명수 본회 부회장 부부, 임성빈 동문 등 8명
 - ◆샌프란시스코
하혜원 회장, 김용백 부부, 김용직 부부, 방영호 부부, 문유진 부부, 유학선 동문 등 12명
 - ◆애틀란타
김영길 회장, 정재수 동문 등 6명
 - ◆덴버
이위권 회장 등 6명
 - ◆하와이
강기철 회장 등 3명
 - ◆벤쿠버(캐나다)
조 건 회장 부부, 박두일 고문, 명영남 부회장 부부, 양원석 총무 부부 등 10명
 - ◆토론토(캐나다)
김완식 회장, 정관풍, 김종국 동문 등 8명
- 총 138명

제20대 임원수첩 협찬자 명단

임원수첩 제작에 협찬하여 주신 부회장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동문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 ▲정인악 (60 화학·본회 부회장) = <주> 남양사 회장
 - ▲이연택 (61 법학·본회 부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김재국 (63 법학·본회 부회장) = 동원증권<주> 고문
 - ▲김양일 (63 정의·본회 부회장) = 울산일보 회장 발행인
 - ▲박준형 (63 경제·본회 부회장) =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 ▲윤부성 (63 생물·본회 부회장) = 동국기획<주> 대표이사
 - ▲이능희 (65 상학·본회 부회장) = <주>태평양 부회장
 - ▲홍평우 (70 경영·본회 부회장) = 신라명과 대표이사
 - ▲서정호 (76 경영·본회 부회장) =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회장
 - ▲서승삼 (78 경제·본회 상무이사) = <주>녹십자 전무이사
 - ▲구자선 (81 경원·본회 부회장) = 코스모 스포츠 빌 / 태우주택 회장
 - ▲이두철 (91 지원·본회 부회장) = 삼창기업<주> 대표이사
 - ▲안보순 (91 행원·본회 부회장) = <주>한국안보 대표이사
- ※ 각 100만원씩 협찬.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권노갑 회장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송석구 총장이 권노갑 회장에게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좌측이 권노갑 회장).

「98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 총동창회장,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 총장, 오록원 이사장을 비롯해 황명수(53 정의·국민회의 부총재) 명예회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 수석부회장, 안채란(54 국문·영석학원 이사장) 재단 이사과 본회 임원 및 학부모,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노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명예로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게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16만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한 후 「여러분들은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기 바란다. 또한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는 동국인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을 지라도 우리 총동창회와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송석구 총장은 「희망찬 21세기

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새 천년의 주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졸업하더라도 동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동국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오록원 이사장은 「모든 학위 수여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발전적인 삶을 사는 동국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3백1명이며, 석사학위 수여자 3백44명, 박사학위 수여자 54명이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 권노갑 회장은 지난 30여년간의 민주화 운동과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 권노갑 회장은 「금번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더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후기 학위수여식은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부산동문회 경찰동문 초청 모임

부산동문회(회장=김상훈·59 국문·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8월 19일 오후 7시 광안리에 위치한 고향집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인사·이동에서 승진·영전한 경찰직 동문들을 초청하여 동문들간의 우의와 정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김상훈 회장을 비롯해 손승환(61 정의·시멘트 가공조합 상무)상임부회장, 이용범(65 법학·〈주〉오양 대표이사) 부회장, 김간홍(89 일원·〈주〉달암건설 대표) 동문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에서는 정학주(72 법학·본회 상무이사)영도서장, 오경중(76 경행·본회 이사)부산진서장, 김석구(91 일원)연산서장, 박기륜(82 경행)부산청 감사담당관, 김충엽(84 경행)북부서 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외교학과동문회 회장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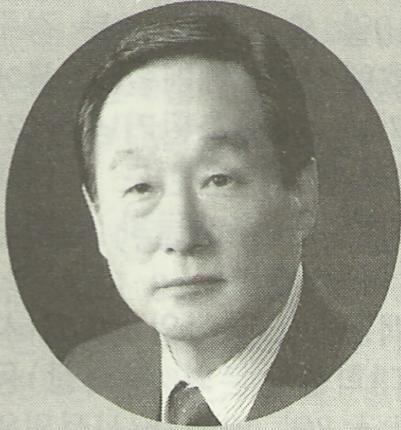
정치외교학과동문회(회장=이석용·58 정의·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9월 14일 저녁 7시 용산구 삼각지 소재 국방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의과동문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캠퍼스 국악과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불교문화대학 국악과(주임교수=윤소희)는 지난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동국대 국악과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한상일 교수의 시나위합주를 시작으로 △범패 △가야금제주 △불교 무용 △전통 무용 △창작무용의 1부 행사와 △국악관현악과 아리랑 △국악관현악과 피리 △국악관현악과 신민요(신민요연곡)의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98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총동창회장 축사



권노갑 회장

尊敬하는 吳綠園 理事長님과 理事 여러분! 宋錫球 總長을 비롯한 敎職員 여러분! 그리고 内外貴賓과 사랑하는 東國家族 여러분!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으나 보람있는 敎育課程을 마치고, 오늘 名譽로운 學士, 碩士,

博士學位를 받게 된 卒業生 여러분에게, 16萬 同門을 代表하여 眞心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犧牲적인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 學父母 여러분께도 感謝와 祝賀의 뜻을 傳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敎職員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東國大學校의 자랑이자 希望인 卒業生 여러분!

만남은 作別의 첫걸음이요, 作別은 또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輪廻의 眞理 속에서, 오늘 우리는 惜別의 精을 나누고, 힘찬 새로운 始作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卒業生들이 靑雲의 꿈을 안고 東國大學校에 入學한 以來로, 짧게는 4年, 길게는 10餘年 동안 刻苦의 努力 끝에 그 結實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母校의 總同窓會長으로서 몇 가지 當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卒業이란 새로운 始作이며, 挑戰과 機會가 있는 새로운 世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判斷과 責任으로 自身의 人生觀을 새롭게 定立하여 여러분은 自立과 自主의 새로운 出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出發은 挑戰과 創造의 機會요, 自我實現을 위한 끝없는 可能性의 世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반드시 責任感이 뒤따르고, 때로는 挫折과 苦難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確實히 高貴한 經驗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劬한 經驗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은 보다 더 成熟한 人間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同時에, 여러분은 결코 孤獨한 個人의 存在가 아니라, 때로는 善意의 競爭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同行하고 있다는 事實도 切感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卒業生 여러분!

여러분의 最大 長點은 젊다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可能性을 지녔다는 意味이며, 그 可能性은 반드시 結實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꿈과 希望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現實은 그 어느때보다도 利己心과 虛榮으로 가득찬 젊은이가 아닌, 남을 위한 慈悲와 奉仕 그리고 犧牲의 實踐者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우리 社會는 眞理와 自由의 知性人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우리의 現實과 社會의 期待에 副應하여, 透徹한 召命意識을 갖고, 勇猛 前進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치고 지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歷史의 指標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未來는 그 功績위에서 더욱 빛나는 希望찬 時代로 發展할 것입니다.

未來는 準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坦坦大路의 未來를 開拓할 수 있도록 그동안 總長을 비롯한 敎職員 여러분과 父母님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熱과 誠을 다하여 좋은 훈과 맑은 물과 기름진 滋養分을 주셨습니다.

이제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따뜻한 東國家族의 精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제 母校를 떠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惜別의 精을 나누면서, 16萬 同門을 代表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의 榮譽로운 앞날을 위해 뜨거운 激勵과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정든 校庭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든든한 마음의 故鄉, 東國大學校가 있다는 事實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그 어느 곳에 있을 지라도 우리 東國大學校는 부처님의 慈悲心으로 여러분과 함께 永遠한 前進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卒業과 동시에 우리 總同窓會의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16萬 同門과 함께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이며, 先輩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따뜻한 助言과 後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千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舉行된 여러분의 榮光된 卒業을 다시 한번 祝賀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 8. 27.

東國大學校總同窓會 會長 權魯甲

동문활동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회장은 지난 8월 27일 열린 「98학년도 후기학위 수여식」에서 지난 30여년간의 민주화운동과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병천(58 일원·서경대 총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8월 19일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인권보장특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선진규(59 불교·조계종 전국 신도회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가졌다.

▲이윤종(59 법학·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뉴질랜드 국민방문시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12일 출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동문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17차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가했다.

▲이기화(59 경제·안진회계법인 고문·모교 재산감사·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5월 안진회계법인과 (구)세동경영회계법인이 합병하여 한국아더앤더슨그룹으로 출범한 후, 안진회계법인 고문으로 임명됐다. 한국아더앤더슨그룹은 지난 9월 6일 여의도 한화증권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박상규(61 국문·국민회의 부총재·본회 부회장)동문은 경기은행 퇴출 로비에서 서이석 전행장의 뒷돈을 뿌리쳐 화제가 됐다. 박동문은 『당시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자발적인 의무감에서 비

롯된 것일뿐, 이를 돈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서이석 전행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송석구(62 철학·모교 총장·본회 고문)동문은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모교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과학기술부장관 등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능반도체 및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또한 송동문은 지난 8월 19일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종교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행기(62 국문·금산군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9월 8일 금산군 인삼종합전시관 광장에서 그윽한 인삼향기속에 인삼의 전통을 세계속에 심고자, 문화관광축제의 하나로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했다.

▲우하수(62 영문)동문은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김양일(63 정외·울산일보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5일 선운사 동백호텔에서 열린 고창문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徐政太 원로시인)에서 수필 「동서화합」으로 제4회 「고창문학상」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희(63 법학·부평구청 어린이집 원장·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최근 새정치국민회의 인천시지부 여성특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만식(63 경영·몽고식품그룹 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9월 4일 창업 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2000년대를 대비, 생산제조와 판매유통을 이원화하여 「주식회사 몽고유통」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업식을 가졌다. (강남구 논현동 60-9 삼화빌딩 8층, TEL: 548-2208-9)

▲김진억(64 법학·전라북도의회 의장 / 국민회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8월 19일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김희오(64 정외·모교 교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경주콩코드호텔 1층 에메랄드 홀에서 화갑기념 저서출판기념회(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 / 현대지역정치론)를 후배들과 제자들로 부터 봉정받았다.

▲백경남(65 정외·모교 사회과학대학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8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내정됐다.

▲김교근(65 경영·새한상호신용금고 상임고문·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8월 23일 상명대학교 후기학위수여식에서 「人事考課의 狀況的 要因이 考課特性과 組織沒人間 관계에 미치는 影響」이란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축하연은 같은 날 12시 하림각 신관 2층에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원주(65 불교·본회 이사)동문은 지난 9월 1일자로 명성여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금규(65 법학·국회의원·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자민련 원내총무로 선출됐다.

▲최규철(66 정외·모교 경주캠퍼스 부총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최근 총동창회 직할경주동창회(회장=장제익·89 한의·대세당한의원 원장·본회 부회장)임원 전원을 초청해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고 격려했다.

▲민병철(66 상학·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8월 10일(주)동명기술공단 자회사인(주)동명 KC & S·동명기술건설(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민동문은 지난 3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바로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교육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다. (TEL : 557-9737)

▲류수택(67 경영·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 3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유동문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해왔다.

▲윤영창(67 국문·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9월 1일자로 남원여자정보고교 교장으로 승진·발령됐다.

▲오록원(동국학원 이사장) 큰스님은 지난 9월 14일 정각원에서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라는 주제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에게 지침이 될 개강법회를 개최했다.

▲최상용(68 행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본회 운영위원) 동문은 지난 8월 30일 한·중 직업훈련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최동문은 중국의 기능개발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벌였다.

▲이상현(68 경행·모교 행정대학원장·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7월 29일 경찰위원회 위원 7명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경찰위원(비상임)에 임명됐다.

▲이무영(71 행정·서울지방경찰청장·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8월 23일 일본 도쿄 경시청에서 마에다 겐지 도쿄 경시총감과 「양국 수도 경찰간 우호결연 서명식」을 갖고, 향후 총기·마약·첨단 산업스파이 등 각종 국제 범죄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 자국의 선진 수사기술이 세계 최고라며 타국과 우호 결연이나 협력관계를 거부해온 일본이, 1백30년 일본 경찰 처음으로 타국과 맺은 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희경(72 경행·경찰청 감찰담당관·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모교 98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보광(75 불교·대각사상연구원장·모교 대외협력처장·본회 상무이사) 큰스님은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모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계의 노동문제」를 주제로 대각사상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숙(76 일원·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으로 승진·발령됐다.

▲조영구(76 지교) 동문은 지난 9월 1일 학교법인 경신학원 내 경신고등학교 교감으로 취임했다.

▲최영태(77 행원·UNEP·APENK 동해환경연구소 소장·본회 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8월 14일 포항 시그너스호텔 2층 대회의장에서 「포항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강생산 세계수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동해시와 같이 개최했다.

▲남재우(78 정외·본회 이사) 동문은 지난 8월초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김봉구(78 행원·이화여대 교수) 동문은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미술품을 재료로 「새로운 탄생」이란 주제로 개인 조각전을 갖는다.

▲박기륜(82 경행·부산경찰청 감사담당관) 동문은 올 2학기부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경찰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2월 모교에서 「통일에 따른 한국 경찰기구 통합규모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동문은 지난해 대전 중부대에서 강의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또한 「통일한국 경찰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유인학(92 일원·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8월 1일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유동문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양대 법대교수로 재직해왔다.

▲김기재(93 행원·행정자치부장관·본회 부회장) 동문은 지난 8월 26일 방한중인 뒤 지 차이랑 중국 민정부장과 런펑시앙 내몽고 자치주 민정청장의 방문을 받고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안호(93 지원·지역개발대학원 포항지부 회장·대원철강(주) 사장) 동문은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전국 불교 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고산(행원·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은 지난 9월 1일 여의도 대오빌딩 12층에서 「여의도 불교포교원 개원(점안·봉불)대법회」를 봉행했다.

▲지만호(94행원·월간 한방과 건강 발행인·연변대 객좌교수·본회 운영위원) 동문은 지난 9월 10일 중국 연변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지동문은 차제에 중국 한의학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학계 인사들과 양국간 한의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윤욱선(94 경원·〈주〉모든텔레콤 대표이사) 동문은 지난 9월 9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체리홀에서 스포츠·게임용 시스템인 영상사격술 시연회를 가졌다.

▲이순길(99 일원·법무부 교정국장) 동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6월 일반직으로는 처음으로 교정국장에 임명된 이 동문은 이 논문에서, 민영교도소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김홍미(99 불교·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스님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모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7학기만에 불교학, 선학, 인도철학 등 3개 전공을 동시에 이수해 문학사 학위 3개를 동시에 받았다.

〈8면으로 이어짐〉

▲송 목(불교대학원동문회 사회복지회 회장·동원정사 주지) 큰스님은 지난 7월 18일 회원 30여명과 파주 관음대비 양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갑주(모교 명예교수)동문은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 겸 김갑주교수 정년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최현각(모교 불교대학장)큰스님은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열린 「제12차 국제불교학회(IABS)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깨달음에 대한 방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월 운(모교 역경원장)큰스님은 지난 7월 25일 용산구에 위치한 대원불교회관에서 대원불교대 재학생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미은행〉

▲전창열(82 회계)=전주영업지점장

〈한빛은행〉

▲성동언(71 행정)=대전지점장
▲김동영(73 무역)=고덕서지점장
▲최병도(76 농경)=인천지점장

▲임현규(77 경제)=신성쇼핑지점장
▲이성희(78 무역)=대치역지점장
▲박득곤(80 경행)=당산지점장
▲배상열(88 무역)=부평지점장
▲박인석(88 행원)=광주지점장
▲이인배(경원 40)=개포지점장

법무부 교정직 동문

▲이순길(99 일원 / 경찰행정학과)=교정국장
▲신왕식(65 법학)=부산보호관찰소 상임위원
▲변동운(66 법학)=광주지방교정청장
▲민경화(68 법학)=대전지방교정청장
▲정영식(69 법학)=청송 분류주임(2감호소)
▲최규수(71 경행)=경주교도소장
▲하근수(71 법학)=대구교도소 부소장
▲유병철(88 법학)=교화과

사무관
▲지덕식(88 행정)=경주교도소 보안과
▲강기천(89 사회)=성동구치소 보안계장
▲김희철(89 법학)=경주교도소 보안계장
▲이을우(89 법학)=경주교도소 보안과
▲최강주(89 경행)=교정과 행정담당
▲황명모(90 일문)=경주교도소 서무과
▲문해전(90 불교)=경주교도소 서무과

동문인사이드

〈환경부〉

▲한두환(68 통계)=경인환경관리청 관리과장

〈한국가스공사〉

▲강승원(73 경행)=감사실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성상(경원 22)=경리부장
▲김성수(경원 24)=사고조사처장

〈국민일보〉

▲장재진(90 경원)=신매체창간준비위원장 간사(부국장대우)

〈기업은행〉

▲이금호(73 법학)=수원지점장

〈주택은행〉

▲김원기(76 농경)=대구지역본부장

▲조병복(79 경제)=무교동지점장

▲최응호(80 경제)=수유동지점장

〈제일은행〉

▲김성배(84 전산)=도봉동지점장

불교대학원총동문회

하계수련회 개최



불교대학원총동문회(회장=윤호석·95 불원·석정온천개발<주> 회장·본회 운영위원)는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백담사에서 동문간의 우의와 도반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99년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윤호석 회장을 비롯해 정인악

(60 화학·<주>남양사 회장·본회 부회장) 고문, 김성호(93 불원·불교미술관 관장·본회 운영위원) 고문, 정용수 자문위원 등 회원 104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오세암, 봉정암, 건봉사, 약수사 등을 찾아 참배했다

정성어린 회비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이 내주신 회비는 총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기간 : 1999. 7. 10 ~ 9. 13>

알림

1. 회비 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졸업년도·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고문회비

단위 : 만원

- ▲김은하 (52정외) = 30
- ▲문태식 (49사학) = 100
- 계=1백30만원

부회장 회비

단위 : 만원

- ▲구재태 (67경행) = 100
- ▲권석총 (70정외) = 100
- ▲김동길 (61경제) = 100
- ▲김용백 (62법학) = 850불
- ▲김일윤 (92경원) = 100
- ▲김진선 (74행정) = 100
- ▲김희옥 (72법학) = 100
- ▲남기일 (63상학) = 100
- ▲백경남 (65정외) = 100
- ▲원용선 (63영문) = 100
- ▲윤천영 (66농학) = 100
- ▲이화래 (62법학) = 100
- ▲임덕규 (60법학) = 100
- ▲정상영 (61법학) = 200
- ▲조은구 (68경제) = 100
- 계=1천5백만원
8백50불

지도위원 회비

단위 : 만원

- ▲김제국 (61경제) = 30
- ▲마경자 (53국문) = 30
- ▲방지하 (71불교) = 30
- ▲안철환 (52경제) = 30
- ▲전운덕 (63경제) = 30
- 계=1백50만원

운영위원 회비

단위 : 만원

- ▲김만진 (92경원) = 2
- ▲김배근 (63경제) = 100
- ▲김성수 (61경제) = 100
- ▲김창종 (71경제) = 10
- ▲이새배 (70식공) = 2
- ▲이시우 (93행원) = 100
- ▲정현화 (66상학) = 100
- ▲최성균 (60법학) = 100
- ▲하만장 (92경원) = 100
- 계=6백14만원

분과위원장 회비

단위 : 만원

- ▲김진문 (71경영) = 100
- ▲장동락 (75정외) = 40
- 계=1백40만원

상무이상 회비

단위 : 만원

- ▲김길배 (80경행) = 20
- ▲김동성 (81정외) = 20
- ▲김동진 (79법학) = 20
- ▲김만수 (66정외) = 40
- ▲김문재 (98행원) = 20
- ▲김선정 (76행정) = 20
- ▲김성수 (68경행) = 20
- ▲김성환 (64경제) = 20
- ▲김행기 (62국문) = 20
- ▲남형수 (75경행) = 20
- ▲민경봉 (64법학) = 40
- ▲박만갑 (68정외) = 20
- ▲박수현 (84경행) = 20
- ▲박정영 (67정외) = 20
- ▲배종대 (62철학) = 20
- ▲서상열 (98행원) = 2
- ▲성장현 (행원) = 20
- ▲송건범 (59사학) = 20
- ▲신승길 (63경제) = 20
- ▲심경모 (61영문) = 20
- ▲양성철 (80경행) = 2
- ▲오정석 (79농학) = 20
- ▲윤대흠 (61정외) = 20
- ▲윤태준 (92경제) = 20
- ▲이용식 (64농학) = 22
- ▲이윤훈 (81정외) = 40
- ▲이채옥 (64정외) = 20
- ▲이흥태 (98행원) = 2
- ▲정재기 (68정외) = 20
- ▲차중근 (68상학) = 20
- ▲최규수 (71경행) = 22
- ▲한정규 (98행원) = 22
- ▲한창호 (70경행) = 22
- ▲허길남 (67응생) = 20
- ▲허남석 (98행원) = 20
- ▲홍사현 (63사학) = 20
- ▲홍원표 (68정외) = 20
- ▲황영수 (70경제) = 20
- 계=7백74만원

이사 회비

단위 : 만원

- ▲강무남 (68경영) = 20
- ▲강석진 (63경제) = 10
- ▲강진수 (89법학) = 10
- ▲고병현 (59경제) = 10
- ▲권중원 (68상학) = 10
- ▲길육 (72행원) = 10
- ▲김경오 (94지원) = 10

- ▲김교근 (65경영) = 10
- ▲김대용 (67경제) = 10
- ▲김상구 (77경행) = 10
- ▲김성식 (64농경) = 10
- ▲김영화 (67경행) = 10
- ▲김왕식 (76통계) = 20
- ▲김용호 (75공경) = 20
- ▲김인수 (80농학) = 10
- ▲김종일 (58법학) = 20
- ▲김진억 (80경영) = 10
- ▲김홍천 (83경행) = 10
- ▲류재선 (70농경) = 10
- ▲문효치 (66국문) = 10
- ▲박낙원 (61정외) = 10
- ▲박영환 (49문학) = 10
- ▲박정기 (85경제) = 10
- ▲박종한 (78경행) = 10
- ▲박천화 (80경행) = 10
- ▲방재홍 (81경원) = 10
- ▲서동호 (66법학) = 10
- ▲서상찬 (97지원) = 20
- ▲성진경 (62법학) = 10
- ▲신관호 (73경제) = 10
- ▲신동욱 (94불원) = 20
- ▲신희래 (85국문) = 10
- ▲심춘섭 (61정외) = 10
- ▲안병민 (72토목) = 10
- ▲양영훈 (67경영) = 20
- ▲어청수 (80경행) = 20
- ▲오경종 (76경행) = 10
- ▲왕표순 (49정외) = 10
- ▲우동휘 (59경제) = 10
- ▲원용근 (71경제) = 10
- ▲유창일 (63경영) = 10
- ▲위종성 (71농경) = 20
- ▲이신백 (75농학) = 10
- ▲이영일 (73행원) = 10
- ▲이인정 (72상학) = 10
- ▲이현경 (95행원) = 10
- ▲장수정 (67임학) = 10
- ▲전육주 (67농생) = 2
- ▲정동호 (77정외) = 20
- ▲조희재 (67식공) = 10
- ▲최도윤 (68법학) = 10
- ▲최준영 (94산원) = 10
- ▲최해일 (91행원) = 10
- ▲한성규 (69물리) = 10
- ▲황래열 (78체교) = 10
- ▲황성준 (78법학) = 10
- 계=6백52만원

제7회 전국대학동창회 사무처 책임자 간담회

16개 대학동창(문)회 30명 참석하여 친목도모



◇인사동의 명소인 경인미술관내 전통 찻집에서 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제7회 전국대학동창(문)회 사무처 책임자 간담회」가 지난 9월 9일 오후 7시부터 본회 주최로 16개 대학동창(문)회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본회에 도착한 각 대학 사무처 관계자들은 서로의 안부와 인사를 나누며 간담의 시간을 가진 후, 곧이어 본회가 마련한 송도(한식 전문점)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지찬경 본회 사무처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모임이 이제 확실히 제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현대사회는 정보가 힘이고 돈이다. 우리는 서로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활발한 정보교류로 앞서가는 동창(문)회, 힘있는 동창(문)회를 만들자」고 말한 후, 본 모임에 처음 참석한 광무영 건대총동문회 신임 사무총장과 경남대총동창회 강병희 사무총장, 경기공업·국립서울산업대총동창회 오재규 사무총장, 숙대총동문회 최윤지 간사, 동덕여대총동문회 서희선 간사, 국민대총동문회 김해숙 문화부장·장을희 기획부장을 각각 소개했다.

광무영 신임 총장과 같이 참석한 김정규 전 건국대 사무총장은

「홍진형 신임회장이 취임한 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무총장직을 물러났다」며 「18대 총학생회장과 흥국생명 총무이사를 역임한 광무영 후배에게 총장직을 물려 줄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건국대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간담회에 처음 참석한 영남대총동창회 강병희 사무처장은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처음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각 대학동창(문)회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로 영남대총동창회 뿐만아니라 모든 대학동창(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자. 앞으로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으며, 오재규 경기공업·국립서울산업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처음 참석하는 모임이지만 옛날부터 사귀어온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주 편안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편안하면서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며 초

대해준 모든 대학동창(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외대 안승남 간사는 「신임 최동호 회장님이 본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모임인 만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최동호 회장이 보낸 금일봉을 지찬경 본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최동호 회장과 외대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식사를 마치고 본회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로 각 대학동창(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인사동의 명소인 경인미술관내 전통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전통차를 음미하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금년 송년모임은 경희대총동문회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 대학동창(문)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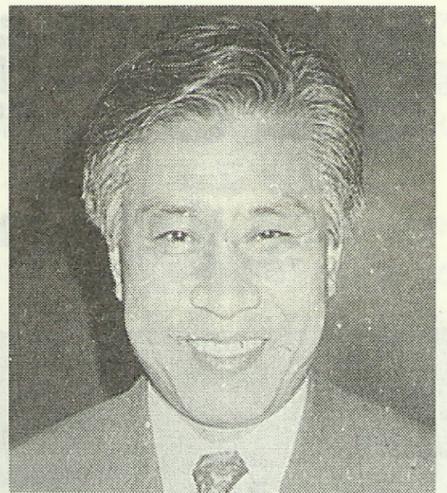
- ▲건국대총동문회 김정규 전 사무총장·광무영 신임 사무총장·현익동립 멀티시스템 대표 ▲경기공업·서울산업대총동창회 오재규 사무총장 ▲경북대총동창회 이상려 사무처장 ▲경희대총동문회 구현서 사무국장 ▲국민대총동문회 전호섭 총무국장·김해숙 문화부장·장을희 기획부장 ▲동국대총동창회 지찬경 사무처장·최현희 간사·이상호 편집장·김수경 직원 ▲동덕여대총동문회 나춘희 사무총장·서희선 간사 ▲상명대총동문회 이유나 간사·이화정 기자 ▲숙명여대총동문회 박소영 사무국장·최윤지 간사 ▲연세대동문회 한원일 홍보실장 ▲영남대총동창회 강병희 사무처장 ▲인하대총동창회 전근상 사무국장·김지영 선생 ▲중앙대총동창회 전광현 사무국장 ▲한국방송대총동문회 장재만 사무총장·이순희 사무부장·박남근 조직국장 ▲한국외국어대총동문회 안승남 간사 ▲홍익대총동문회 김백수 사무총장·심상미 총무담당.

이상 16개 대학동창(문)회 30명.

사회 봉사에 이 한몸 바친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송재천 동문

2년전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으로 취임한 송재천(66 정외·본회 상무이사)회장은 한 조직의 리더답지 않게 소박하고 자유롭게 산다.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해 온 송회장은 일원동의 22평 임대아파트에서 현관문도 열어놓은 채 지내고, 자신에게 배정된 회장용 승용차도 마다하고 전철로 출·퇴근한다. 송회장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홀트아동복지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홀트아동복지회 송재천 회장의 호주머니는 언제나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 속에 20여개의 켈리와 10여개의 동전지갑, 필통 등을 넣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 용도가 궁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착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요』 길거리나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얼른 켈리를 꺼내 아이 입에 물려 준다. 또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 길가에 나뭇구름 휴지를 줍는 사람 등 도처에서 볼수 있는 「아주 작지만 예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필통과 동전지갑을 건넨다.

이것은 송동문의 아내 서경분씨가 직접 재봉질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다.

「이 작은 물건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이에게 박수를 보내며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가족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다. 그렇게 지난 7년전부터 지금까지 그가 나눠준 동전지갑만도 2만여개에 이른다.

『선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자는게 제 생활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에 대한 욕심을 없애고 이웃과 더불어 살려는 마음을 가지면 늘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지난 92년 이들 가족에게도 시련이 닥쳤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던 아들 문호가 뇌종양에 걸린 것이다. 뇌종양 수술후 아들은 시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어린 아들이 『내 형제나 친척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고 내가 대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하는 것을 보고 『눈뜰 우리가 마음 약하게 먹고 속상해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착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력을 잃고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너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호를 통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약자를 돕는 법을 알게 되어 감사한 일이지요』 현재 고3 학생인 문호는 다시금 조금씩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송동문의 이런 가족사는 그가 홀트아동복지회를 이끄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아들의 장애로 인해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와 육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내외 입양을 상담하고 알선하는 기관일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시설과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다.

57년이후 지금까지 국내 입양자 5만6천명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한 국내 입양자 수는 1만6,992명이고 국외 입양은 6만9,307명에 이른다.

국외 입양자 수는 80년대 이후 현저히 줄고 국내 입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외국에 팔아먹는 기관이라고 비난하는 말도 들려요.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나라 가정에서 모두 입양하면 국외로 나가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아이를 남의 나라로 내보내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어요』

송동문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열린 시각을 갖게 돼 입양을 터부시 하는 풍조가 사라질길 바란다고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입양인들이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국 방문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의 생활과 문화,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업무외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일산복지타운과 홀트요양원, 홀트장애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과 영아원 등도 운영한다.

송동문은 『입양 부모에게 받는 일정액과 후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다』며 후원을 기다린다고 했다.

〈후원문의 : 02-322-8673. 지로번호 7506837. 주택은행 479037-01-000461. 예금주 홀트아동복지회. 한 구좌 월 5,000원〉

행원동문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조성태 국방장관 동문 외 3명에게 축하패 증정



◇안병호 회장은 이자리에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동문회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행정대학원동문회 (회장=안병호·82 행원·신진철강<주> 대표이사·본회 운영위원)는 지난 9월 6일 오후 7시 모교 상록원에서 안병호 회장과 박익주(61 정의·84 행원·내외건설<주> 고문·본회 지도위원) 명예회장, 윤일균(69 행원·<사>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본회 지도위원) 고문 등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대학원동문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석봉(87 행원)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성태(91 행원)동문과, 이번 98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청일(신세계섬유<주> 대표이사)동문, 김형택동문, 이종훈(성원산업개발 대표)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으며, 박익주 명예회장에게는 그동안 행정대학원동문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동문회 발전과 동문간의 우의 증진에 기여한 공을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제14대 임원들에게 위촉

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동문회와 개인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행원 동문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안병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문회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후 『앞으로 저는 사업하시는 동문들이 서로 협조하며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상현(68 경행·행정대학원장·본회 상무이사)원장은 『그동안 우리 행정대학원은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동문들을 볼 때 매우 기쁘며 원장으로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한 후 『우수한 원생을 확보하는 길은 동문회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서 가능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동문회는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며 『화끈하게 학사운영을 해 나갈 것이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관

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석봉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단상에 오른 안병호 회장은 ▲동문회 회칙 추가의 건 ▲동문회 사무실 매입의 건(충무로 소재 대한극장 뒷편) ▲년말 동문의 밤 행사일 선정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안병호 회장은 오는 12월 10일 개최 될 동문의 밤 행사에 200만원을 협찬하겠다고 약속하여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동문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행원동문회 주요 사업 및 행사 일정>

- ▲66기 신입생 자축연(10월 5일/火)
- ▲제14대 임원수첩 제작(9월 - 10월)
- ▲임원회의(10월)
- ▲동문의 밤(12월 10일/金)

지역개발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 지역개발대학원 (원장=김영종)은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최규철(66 정의·본회 상무이사)경주캠퍼스 부총장과 이두철(91 지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회장, 지찬경(76 경행)본회 사무처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캠퍼스 원효관 소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한편, 지대원 21기 총학생회(회장=오세찬)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보문단지내 콩코드호텔 루비룸에서 졸업생 환송회를 개최하고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채란장학금 수여식 거행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여성인재로 성장·발전 기대



◇안채란 이사장이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1999학년도 2학기 채란장학금(이사장=안채란·54국문·영석고등학교 이사장) 수여식이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모교 계산관에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 총장, 이순용(58 법학·본회 부회장) 모교 명예교수와 우순이(60 정의·본회 지도위원) 대영실업<주> 대표 및 류풍운 비서실장 등 20여명의 관계자 및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채란 이사장은 『나의 자랑이며 금지인 동국대학교에서 깨우침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하며,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한 후 『‘대망’이란 일본 역사 소설을 보면, 일본인들에게 있어 기본 정신과 교육은, 국익을 위해 작은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며 『우리 후배 여학사들도 우월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새로운 천년에는 남성들과 대등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해야 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 인재로 성장·발전하

기를 바란다』며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현모양처와 훌륭한 사회 여성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송석구 총장은 축사를 통해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안채란 이사장님처럼 남을 위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다』며 『채란 장학금을 받은 여러분들은 죽을때까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보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임순(57 영문·한국걸스카우트 서울시연맹 부연맹장) 동문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께 보은하는 길이다. 또한 나도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베풀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희 교수는 『안채란 이사장님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 남에게 주는 삶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임돈희 전 여학생실 실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좋은 환경에서 보다 발전된 여학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란장학생을 대표해 손미란 양은 『채란장학생이 되고 지난 학기동안 동료 채란장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부처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우선 대학내 여성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 구조상 더 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제가 여성으로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졸업하신 여자 선배님들의 활약상을 알게 되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한 후 『지난 학기 채란장학생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이 깨달음을 깨우치게 해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마경자(53 국문·과주여자종교 이사·본회 지도위원) 동문, 정임순 전 동녀회 회장, 한명희 교수, 김영순(69 화학) 여학생실 실장, 임돈희 전 여학생실 실장, 석혜광(63 영문·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본회 이사) 스님, 김영란(55 법학·오륜예진음악학원 원장·본회 상무이사) 동문, 오정수(64 임학) 학생처장, 지찬경(76 경행) 본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채란장학금(1인당 80만원, 총계=800만원)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장학금 수혜자
- ▲김진숙(영어영문학과 4년)
- ▲차주희(지리교육학과 4년)
- ▲김혜선(영어영문학과 3년)
- ▲이선영(응용생물학과 3년)
- ▲문은주(컴퓨터정보통신 3년)
- ▲문정혜(전자전기공학부 2년)
- ▲김소영(불교학부 2년)
- ▲박연미(북한학과 2년)
- ▲김금엽(사회과학계열 2년)
- ▲박현정(컴퓨터정보통신 2년). 이상 10명.

동문교직자 모교 방문의 날 개최

3천여 교직자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로 동국발전 이끌어야



「동문 교직자 모교 방문의 날」행사가 모교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스님·75 불교·본회 상무이사) 주관으로 지난 9월 11일 오후 4시부터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 총장과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 수석부회장, 임덕규(60 법학·월간 디플로머 시지 회장) 부회장, 홍치유(63 물리·본회 지도위원) 서울캠 부총장, 민태진(60 화학·본회 지도위원) 대학원장, 각 학처장과 본회 임원 및 교직자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서울캠 중강당에서 열렸다.

개교 93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는 모교 출신 교직자들을 초청, 재교육을 통하여 대학의 고유한 사명인 연구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고, 학교와 총동창회, 3천여 교직자가 동국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송석구 총장은 「이번 행사는 모교와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동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1세기 동국발전의 미래상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 우리는 신사고, 신행동으로 무장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동국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는 촉매제로서, 또한 새로운 도약의 구심점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주형 수석부회장은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 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중·고교 교단에 우리 동문들이 3천여명이나 재직하고 계신데 대해 총동창회장으로서 무한한 힘과 자랑스러운을 느낀다」고 말한 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각 부문에 있어서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쟁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그 제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교직자동문들이 모교 발전의 첨병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직자동문회 회장으로서는 왕표순(49 문학·본회 이사)

송곡여고 교장이 선출되었으며, 수석부회장은 우하수(62 영문) 동대부고 교장, 부회장은 박정원(65 상학) 덕수정보산업고 교장, 추교정(65 국문) 강일중 교장, 감사는 서풍일(84 교원) 남서울중 교장 선생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중강당에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 심의관을 초청해 「수행평가의 이해와 실례」를 주제로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모교 발전모습 및 입시제도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교직자 동문회를 구성하고 신축건물인 상록원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구농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구농동우회(회장=권오갑·66 농경·한국가스상사 대표·본회 이사)는 지난 8월 15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동원농장에서 「제 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편, 구농동우회 산하 구농동우복지회(회장=김용현·64 농학)는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용인군에 위치한 관광농원에서 「99하계 수련회 및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국가족들의 우의를 튼튼히 하였다.

동국라이온스 월례회

오는 9월 21일 개최

동국라이온스클럽(회장=한영희·61 경제·한영무역<주> 사장·본회 지도위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7시 장충동소재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동국라이온스클럽 월례회」를 갖는다.

동우장학금 지급

재학생 37명 · 고시장학금 등 총 4천2백만원 새 천년의 리더로 확실한 자리매김 하길 기대



◇동우장학금 지급 후, 모든 참석자들은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촬영을 가졌다.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우 장학회(이사장=황명수·53정의·국민회의 부총재·본회 명예회장)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모교 교무회의실에서 황명수 이사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 부회장) 수석부회장, 김제국(61 경제·〈주〉신성주택건설 회장) 지도위원, 이기화(59 경제·세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본회 운영위원) 재단 감사, 박영식(61 정의·국민회의 진주을 지구당위원장) 운영위원, 박종구(65 경영·4.19 혁명부상자회 회장) 상무이사, 오정수(64 임학) 학생처장, 연기영(75 법학·법과대학장·본회 상무이사) 교수 등 본회 임원진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37명(서울캠퍼스 22명·경주캠퍼스 15명)에게 3천7백만원(1인당 1백만원)과 고시장학금 5백만원 등 총 4천2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본회 지찬경(76 경행)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황명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이사장은 『오늘 장학금을 받은 37

명의 후배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한 후 『동우장학생인 여러분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과 인성을 쌓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모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 천년을 우리 동국대학교와 동국인의 시대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여러분들도 동우장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새 천년의 리더로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후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류주형 수석부회장은 『동우장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21세기는 우리 동국인이 이끈다는 각오로 학업을 포함한 모든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동국인으로 당당히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찬경 사무처장은 후배

장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참석한 선배 임원들을 소개했으며, 장학생들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들을 맞았다.

행사가 끝난 후 총동창회 임원진 및 학교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 모든 참석자들은 모교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촬영을 가졌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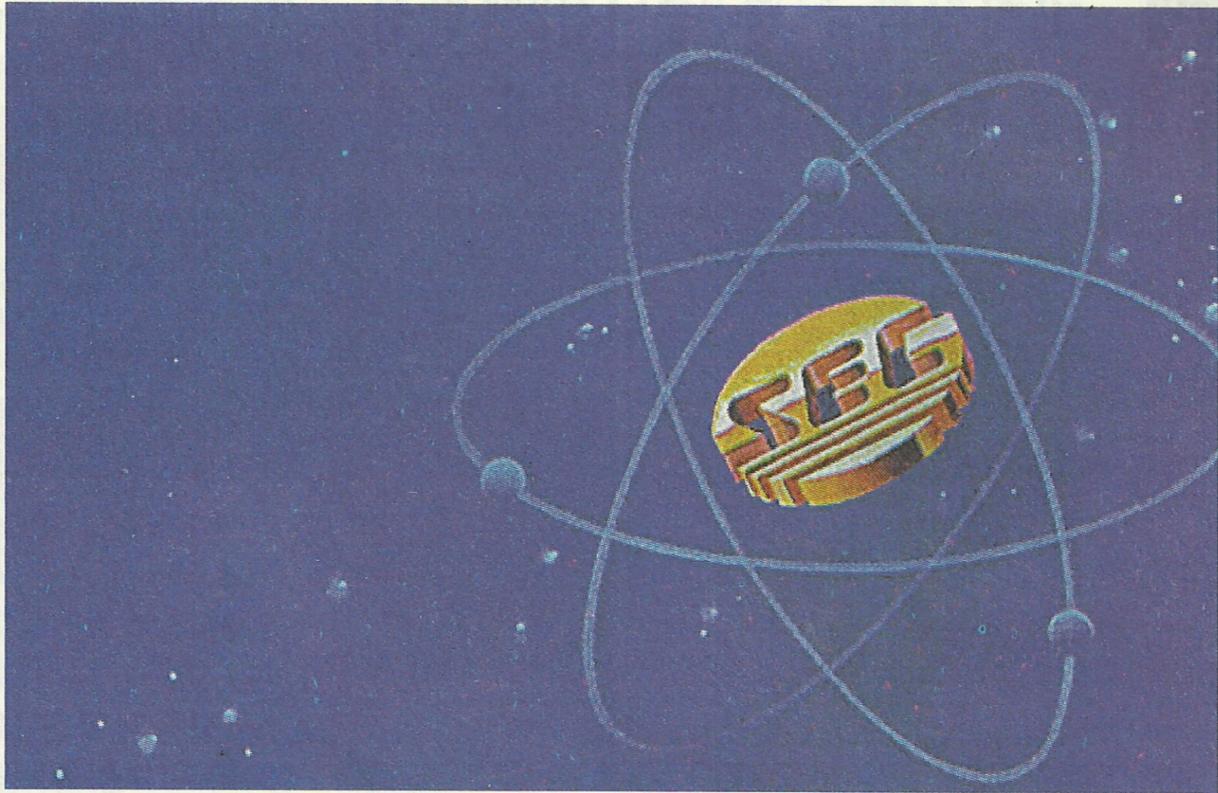
◆서울캠퍼스

▲김상호(신림자원학과 4년) ▲양경아(컴퓨터공학과 4년) ▲김형진(신문방송학과 4년) ▲강신영(전산통계학과 4년) ▲김경희(무역학과 4년) ▲이경진(무역학과 4년) ▲정영목(화학공학과 4년) ▲김숙영(미술학과 4년) ▲이정국(정치외교학과 3년) ▲박영미(선학과 3년) ▲오현정(통계학과 3년) ▲박주현(행정학과 3년) ▲홍지연(응용생물학과 3년) ▲김대원(역사교육학과 3년) ▲유상철(지리교육학과 3년) ▲백현정(일어일문학과 2년) ▲박송이(독어독문학과 2년) ▲이민행(법학과 2년) ▲채범주(경찰행정학과 2년) ▲고유미(산업시스템공학부 2년) ▲차승은(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년) ▲양정선(영어영문학과 1년). 이상 22명. ▲고시장학금.

◆경주캠퍼스

▲정석운(불교학과 4년) ▲이은숙(가정교육학과 4년) ▲주선희(관광경영학과 4년) ▲강보영(의학과 4년) ▲황래현(일어일문학과 3년) ▲김채열(사회복지학과 3년) ▲최정훈(경제학과 3년) ▲서주현(간호학과 3년) ▲박경환(조경학과 2년) ▲조학진(법학과 2년) ▲최훈(법학과 2년) ▲김경준(자연과학부 1년) ▲조민정(한의학학과 1년) ▲김진욱(한의학과 1년) ▲고종욱(한의학과 1년). 이상 15명. 총 37명.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동국인체육대회(제16회)를 축하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념”

- 기술과 신뢰로 정진하는 기술 삼창
삼창의 발전을 성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술 보국의 경영 이념을 되새겨
제 2 창업의 각오로 신기술 개발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 두 철 외 임직원 일동

이두철 동문

(총동창회 부회장·91지원)
지역개발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삼창기업(주) 대표이사



한국 원자력 기술 대상 수상(1995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유공 산업포장 수훈(1995년)
경향 전기·에너지 대상 수상(1996년)
올해의 기업가상 수상(1997년)
제 25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훈(1998년)
“삼창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습니다”

“창의·인화·성실”



SAMCHANG

삼창기업(주) · 삼창기술(주) · 트리메탈코리아(주)